

수원시 박물관-수원외고, 박물관 도슨트 자원봉사 협약 및  
발대식 개최

수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외국어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

박아름 기자 (기사입력: 2015/05/18 14:14) 

【경기경제신문】 수원시 박물관이 수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외국어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.



수원시박물관은 지난 14일 오후 5시 수원박물관에서 수원시 박물관과 수원외고간의 재능나눔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'T·H·E 박물관 도슨트' 발대식을 가졌다.

이는 지 5월 1일 수원시박물관사업소와 수원외국어고등학교간 ‘T·H·E 박물관 도슨트’ 협약체결에 따라, 수원외고 자원봉사 참여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박물관 전시유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.

협약에 따라 수원외고 학생들은 수원박물관, 수원화성박물관, 수원광교박물관 등 수원시 3개 박물관에서 외국어 전시 해설 안내 자원봉사 활동 실시하고, 수원시 3개 박물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과 체계적인 봉사학습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해

나갈 방침이다.

수원시박물관사업소는 수원외고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체계를 마련해,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수행과정을 통해 사회참여와 역사문화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국제화된 관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박래헌 수원시박물관사업소 소장은 “‘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」를 대비하여 외국어 전시해설안내 자원봉사 인력부족 문제를 수원외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전했다.

#### ▶ 사진

